

“건강 돌보고 공기정화도 척척”… 집안 누비는 ‘홈닥터’ 등장

SK네트웍스, 웰니스 로봇 첫 공개
위커힐서 쇼케이스 7월 일반 출시

“우리 기술은 사람 지향” 웰니스 강조
LLM 음성대화·바이탈 체크 지원
이동식 청정, 고정형보다 효율↑
美·말레이 공략… 美엔 생산기지

SK네트웍스와 SK매직이 웰니스 로봇 브랜드 ‘나무엑스(NAMUHX)’를 공개했다. 나무엑스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웰니스 로봇 ‘A1’을 오는 7월 일반에게 내놓는다.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웰니스 로봇에는 우선 에어 솔루션(Air Solution), 바이탈 사인 체크(Vital Sign Check) 기능을 장착했다. 로봇이 이동하면서 집안의 공기를 맑게 하고, 원격으로 혈압과 체온 등을 측정해 건강 관리를 돕는다. 향후혈당 및 BMI(체질량) 지수 등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펫케어 기능도 추가로 제공한다.

SK네트웍스 사업총괄 겸 나무엑스



23일 서울시 광진구 위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웰니스 로봇틱스 브랜드 ‘나무엑스(NAMUHX)’ 쇼케이스에서 최성한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 겸 나무엑스 EA(Executive Advisor)가 브랜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SK매직

EA(Executive Advisor)를 맡고 있는 최성한 사장은 23일 서울 광진구 위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연 쇼케이스에서 “‘나무엑스(NAMUHX)’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기술은 ‘휴먼(Human)’ 즉,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서 “AI를 활용한 ‘혁신성’, 사람과 조화로운 ‘실용성’, 스마트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성’을 브랜드에 담아 로봇틱스를 통한 웰니스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선보인 웰니스 로봇은 LCD 화면을 10초 정도만 바라보면 혈압 등을 자동으로 알려준다.

사람이 “하이 나무, 바이탈 사인 측정 해줘”라고 주문하면 “네, 바이탈 사인을 체크합니다. 혈압은 최고 ○○○, 최저 ○○입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입니다”라고 말한다. 체온, 맥박, 산소포화도 등도 체크해준다.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공기청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1대만으로도 집이나 사

무실내 여러 공간의 공기도 맑게 해준다.

에어 솔루션 기능을 갖춘 웰니스 로봇은 30평 기준으로 고정형 공기청정기 3대를 사용했을 때보다 청정 속도는 1.5배 빠르고, 오염도는 50% 더 낮출 수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게다가 챗 GPT 4.0mini 모델을 장착, 대화를 통해 원하는 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들 기능은 온디바이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터넷 연결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

SK매직 김완성 대표는 “웰니스 로봇은 오는 6월 사전 예약을 받고 7월에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다양한 웰니스 영역으로 확장해 모든 솔루션이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봇은 일시불 뿐만 아니라 렌탈로도 판매한다.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선보이는 웰니스 로봇은 미국과 말레이시아를 우선 공략한 후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에도 진출한다. 특히 미국에는 전략적 파트너와 협업을 통해 판매 및 서비스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향후엔 생산

거점을 마련해 세계 최대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나무엑스는 ‘오픈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SK네트웍스가 지난 7년간 축적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인 ‘하이코 시스템(Hicosystem)’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전문가들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인재들로 구성된 AI 스타트업 ‘피닉스랩(PhnyX Lab)’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AI 개발을 지원했다. 퀵컴코리아, 마음AI, 에브리봇, 클로봇, 큐버 등의 기업과도 함께 하고 있다.

최성한 사장은 “나무엑스를 통해 글로벌 웰니스 오픈 생태계를 만들기위해 다양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실행력도 중요한데 여러 스타트업, 플랫폼과도 협업해 고객들이 필요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쇼케이스 본행사에 앞서 최태원 SK 회장 등이 영상으로 축하를 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34개 펀드 7538억 벤처투자 선정

3개월 내 결성 조건, 신생 VC 전용
창업 초기·가업 승계 집중 지원
롯데 “하반기 투자 땀 회복세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가 3747억원을 출자해 34개 펀드 753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을 통해 선정한 벤처펀드는 3개월 내 결성을 전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펀드가 7월 내 결성될 예정이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는 10개 펀드, 1771억원 규모로 선정했다. 루키리그에는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에선 1조 원의 10%인 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토대로 신생·소형 벤처캐피탈이 펀

드 결성 기회를 갖고,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지원한다.

창업초기 분야는 루키리그 다음으로 큰 1699억원 규모를 선정했다. 50억원 내의 소규모 펀드를 통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업초기 소형분야를 신설한 결과 초기기업 발굴 및 보육에 강점을 가진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는 최근 투자유치 어려움을 겪는 초기 바이오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

투자 대상을 전국 단위로 개편한 라이콘 펀드는 171억원 규모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토대로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M&

A 펀드와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는 각각 10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청년창업 펀드(668억원), 여성기업 펀드(200억원), 재도약 펀드(529억원)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한다.

이번 출자사업은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새로 적용했다.

비수도권 투자, 초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운용사는 우대 선정해 지방투자 및 초기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촉진을 위해 내년까지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최대 20% 한시 인정한다. 비수도권 투자분은 주목적 투자를 120% 인정한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노로바이러스 걸러 깨끗한 물”

‘얼음정수기 RO’ 출시

코웨이가 깨끗하게 걸러낸 맛있는 물과 풍부한 얼음을 제공하는 ‘얼음정수기 RO’를 출시했다. 얼음정수기 RO는 미세 플라스틱부터 중금속까지 거르는 RO필터 탑재, 단단하고 깨끗한 얼음 제공, 강화한 위생 기능 등이 특징이다.

23일 코웨이에 따르면 얼음정수기 RO는 물속에 녹아 있는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바이러스 등 일상 속 유해 물질을 간간하게 거르는 RO필터 테크놀로지를 적용했다.

이 제품은 탁월한 성능을 지닌 RO필터 테크놀로지를 탑재해 노로바이러스

도 99.99% 제거한다.

얼음정수기 본연의 기능도 강화했다. 제품에 코웨이만의 특허 기술인 ‘크리스털 제빙 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얼음을 만들 때 물 속 기포를 제거해 단단하고 깨끗한 얼음을 생성한다. 이 외에 ‘듀얼 냉각 시스템’을 적용해 일 최대 4.9kg의 풍부한 얼음을 즐길 수 있다.

위생도 강화했다. 얼음을 만드는 모든 핵심 부분을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 불순물이나 잔여물 없이 깨끗한 얼음을 생성한다. 또 얼음 저장고, 얼음 파우셋, 출수 파우셋 등 얼음과 물이 나오는 모든 곳을 살균하는 ‘4중 UV 살균 시스템’을 적용했다.

/김승호 기자

LG이노텍, 카메라·기관 덕에 1분기 ‘역대최대 매출’

고사양 모듈 덕에 분기 최대 매출
광학 경쟁 심화로 수익성은 악화

LG이노텍이 올해 1분기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고사양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관 수요 회복이 매출 증가를 견인한 반면, 전방산업 성장 둔화와 시장 경쟁 심화로 영업이익은 줄었다.

LG이노텍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5년 1분기 매출 4조9828억 원, 영업이익 1251억 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15%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28.9% 감소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고사양 스마트 폰용 카메라 모듈의 안정적 공급과 반도체·디스플레이 기관 수요 회복, 우호적인 환율 환경 덕분에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광학 부문 경쟁 심화로 수익성은 다소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사업 부문별로는 광학솔루션사업이 지난해 동기 대비 18% 증가한 4조138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고사양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하며 비수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냈다.

기관소재사업은 반도체용 플립칩 집스케일 패키지(FC-CSP), 고주파 시스템인 패키지(RF-SiP), 디스플레이용



LG이노텍 구미 사업장의 드림 팩토리 전경. /LG이노텍

칩온필름(COF) 기관 등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3,76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해민 기자 hyem@

국토교통부로부터 AMC 설립 인가

유진그룹이 부동산 금융시장에 뛰어든다.

유진그룹은 계열사인 유진리츠운용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AMC(자산관리회사)설립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리츠시장 진출을 추진해왔다. 기존 섬유 계열사인 유진한일합섬이 지난 2월 70억 원 규모의 신규 출자를 단행했고, 이번에 AMC 설립 인가를 획득하면서 유진리츠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인가를 계기로 유진리츠운용은 디벨로퍼 중심의 사업 구조에 금융 기능을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유진그룹은 기존 사업 구조에 부동산

금융을 더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특히 리츠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체계적이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진그룹은 기존 사업 구조에 부동산 금융을 더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특히 리츠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유진리츠운용의 리츠 AMC 인가 획득을 통해 그룹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국내 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리츠 상품을 선보여 시장에서 신뢰받는 디벨로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